

길을 묻는 이에게



대행스님

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
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
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
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
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
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.
살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
드립니다.

●보낼곳: 우 110-170
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-33
현대불교신문사
'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 앞
●FAX: (02)737-0697/8
●PC통신: 인터넷부다피아
http://www.buddhapia.com/mem/ha
nmaum

법공양 페이지

내집 내가 지키고 사는 도리

여러분이 도반으로서 늘 함께 해주시
니 너무나 기쁩니다. 내가 이번에 미국
법회에 가서 느낀 것은 그 사람들의 그
눈빛과 태도가 너무나 지극하고 간절해
서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은 거였
어요. 너무 진지하게 눈을 한번도 떼지
않아요. (그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말
입니다.) 그럴 때 거기서도 차원이 있어
서 차원이 낮은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질
않는데 차원이 높을수록 강력하게 파고
들어선단 말입니다. 그것을 볼 때 가슴이
찡 - 했습니다. 여러분도 비가 오나 눈이
오나 더우나 추우나 그럴 무릅쓰고 도반
으로서 마음 공부를 같이 하자고 애쓰시
는 걸 볼 때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. 외국
인들이나 여러분이나 말이 달라서 그렇
지 그 뜻은 다 똑같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.
우리가 학술적으로나 경학으로 일일이
파져서 배우려면 천 년이 가도 다
못배울 겁니다. 다 못배우는 동시에 깨우
치지도 못할 겁니다. 그러나 여러분은 항상
일거수 일투족이 다 내 몸에서 나오
는 거다, 그놈이 하는 거다, 모든 것을
작용해 주는 생명들의 의식들도 다 다스
리는 그놈이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습

니다. 왜 내가 항상 이런 말씀드리느냐
하면은 죄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믿고
무조건 나라 이었습니다. 그것입니다. 바
로. 무조건 농계 되면 무조건 이 사대로
통신이 되면서, 모든 오장 육부의 의식들
도 통신이 되면서, 모두 이 대뇌를 통해
서 정수에 입력이 됩니다. 입력이 되면,
잘된 것도 못된 것도 무조건 착이 없이,
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별이 없이 여기다
가만 넣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
농계 되면, 앞서에 살아오면서 입력된 것
이 다 없어집니다. 무조건하고 없어지는
거죠. 무조건 냈으니깐 무조건 없어지는
겁니다.
이 마음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오묘조
묘하게 이유를 따지고 분별을 하고 이게
옳으니 그르니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. 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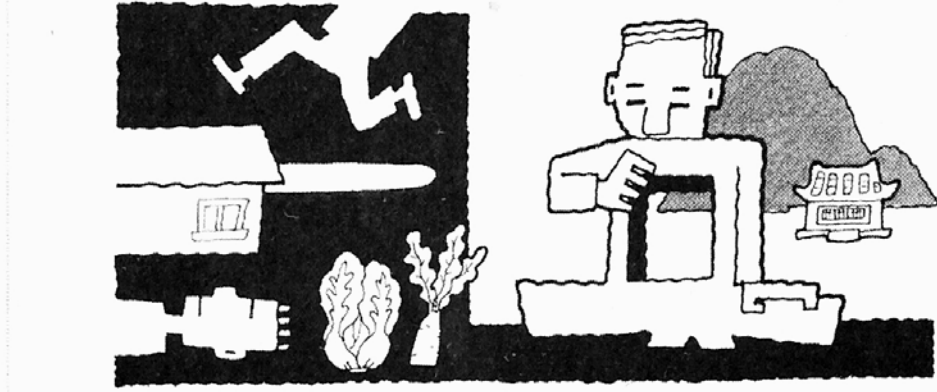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추현

뛰어돌기도 좋아하다가도 나이가 들면
점점 식어갑니다. '에이, 귀찮아, 뭐 귀
들어봤자 그렇구.' 이렇게 하듯이 그냥
모든 것을 그냥 다 닦치는 대로 놓고가
라... 육식(六識)이라고 그러는 자체가
그냥 바로 흡수시킵니다. 육식, 팔정도,
육바라미 이런 모두를 전부 거기에다 흡
수시켜 일불(一佛)로서, 한 도량으로서,
한 공명으로서, 광등하게 그냥 놓아라 이
겁니다. 우리는 그 도량의 맛을 보기 위
해서 지금 서로 도반으로서 길을 가고
있는 겁니다. 눈살이 필요없고 이론이 필
요없죠. 이론을 따지다 보면은 한이 없어
요. 이 물을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이
먹고 싶으니깐 그냥 먹었을 뿐이듯이 모
든 일이 그러하다 이겁니다.
지금 여러분들은 못한다는 게 많고 모
른다는 게 많고 업이 어떻게 되는 게 많고
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울
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얽매입니다.
그러나 마음으로 땀바라미 해 보십시오.
마음으로 땀바라미 할 때는 발이 땅에
붙지 않죠. 그러기 때문에 한 찰라라고
합니다. 빛보다 더 빠르죠. 빛은 가다가
꺼어질 수도 있지만 마음의 빛이란 건
오하러 빛보다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.
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 지
구의 대기권에 있는 오존층이 구멍이 난
다든가 이렇다면 얼음이 녹는 등의 변화

가 일어나고 그러면 물난리 불난리가 나
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는 이치가 생
깁니다. 그러나 여러분이 '아, 저걸 막아
야 되겠구나.' 하는 마음이 있다면 - 여
러분이 몸은 가만히 앉혀 놓고 각자 거
길 간다 합시다. 가도 몸뚱이는 가는 게
아니죠. - 그렇게 내 마음을 정돈하면 스
스로 거기에 가게 되는 거죠. 아주 강한
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
흡입은 있다 하더라도 일이 벌어지지 않
게끔 초치를 취해 놓으면 구멍나는 일이
차츰차츰 줄어들면서 얼음이 녹지 않는
다고 볼 수 있겠죠.
그 반면에 지구를 집이라고 한다면, 집
은 좁은데 식구가 많으면 잘 데가 없겠
죠. 쉽게 예를 들어 배추씨나 무씨를 밭
에 뿌려 놓으면 그냥 한테 소복이 모여
서 나오죠. 그럼 그렇게 붙어 있는 걸 속
아취까지 속아주지 않으면 먹을 게 안
나오죠, 자라지도 못하고, 그래서 속는
일이 점차적으로 많아진다 얘깁니다. 이
건 자연의 법칙입니다. 속는 일은 생키
도, 같이 붙어 있을 때 작아도 속아내지
만 또 큰 것끼리 한테 붙어 있어도 한
뿔아내야 한 놈이 제대로 크죠, 그렇죠?
크거나 작거나 붙어 있는 놈들은 다 뿔
아내듯이 이 세상의 만물만생이 다 그러
합니다. 뿔아내는 일이 점차적으로 많이
생긴다는 얘깁니다.

그런 반면에 무엇이 또 거기에 대두가
되느냐. 우리가 만약에 정신계를 추구해
서 물질계와 정신계가 합쳐져 100%가 돼
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진 상
세계가 됩니다. 중세계가 아니라 상세계
'살아오던 습과 착
욕심과 모든생각
한마음속에 흡수시켜
그냥 놓고 사세요'
요. 불꽃토가 된다 이 소리죠. 그건 왜냐
하면은 다른 혹성애다가 또 중세계를 만
들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. 우리가 저런
게 없어도 살 수 있고 이런 게 없어도
살 수가 있는 그런 상세계의 차원이 된
다면 그 없어도 되는 물건이 그냥 다 판
대로 가버리고 말거든요. 판대로 이동이
된다는 얘깁죠. 사람이 물건을 실어다 날
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.
이러니 이런 도리를 어떻게 여러분이
다 인정을 하고 아실 수 있겠습니까? 그
러나 이 마음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이
계시다면 내가 지금 배후발 얘기도 하고

"인간의 마음은 무한대인데 사랑분별이 여여한 자기를 막아요"

니다. 그리고 이 오장육부의 소임을 맡고
있는 그분들, 선정이라고 합시다. 여러분
의 마음에 따라서 응해주시면 되고 나가
는 그 친차반별의 의식의 힘을 말합니다.
그런 걸 본다면 요만한 거 하나 빼놓지
않고 내 몸뚱이가 움직여가고 사는 것이
모두 나의 불성인 원동력이 힘을 배출해
주고, 그렇게 힘을 배출해 주는 까닭에
한 생각이 우주천하를 다 움직여가게 하
는 그런 능력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
습니다. 인간 마음의 근본은 극한대 있는
게 아니고 무한대입니다. 항상 진화해서
발전시키고, 발전하면서 또 거듭거듭 진
화할 수 있는 무한의 심성의 근본인 것
입니다.
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면서 그 반아줄
이라는 자기의 줄을 잡고 나가는 것은
당연하지만, 본래는 반아줄이라는 것도
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분이라는 것
도 없고 교차로라는 것도 없이 그렇게
그대로 여여하다는 사실입니다. 그것은
가르치기 위한 방편의 이름일 뿐입니다.
그런데 악이다 선이다, 나쁜 거다 좋은
거다, 모자란다 영리하다, 길다 짧다, 죄
가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분별과 논리가
그대로 여여한 자기를 막아놓곤 합니다.
본래는 죄가 있다 없다도 없습니다. 참
미묘한 거죠.
인간은 고등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죄
가 있다 없다, 업이 있다 없다, 무명이
있다 없다 이런 게 도통 근본에는 없습

니다. 왜 내가 항상 이런 말씀드리느냐
하면은 죄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믿고
무조건 나라 이었습니다. 그것입니다. 바
로. 무조건 농계 되면 무조건 이 사대로
통신이 되면서, 모든 오장 육부의 의식들
도 통신이 되면서, 모두 이 대뇌를 통해
서 정수에 입력이 됩니다. 입력이 되면,
잘된 것도 못된 것도 무조건 착이 없이,
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별이 없이 여기다
가만 넣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
농계 되면, 앞서에 살아오면서 입력된 것
이 다 없어집니다. 무조건하고 없어지는
거죠. 무조건 냈으니깐 무조건 없어지는
겁니다.
이 마음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오묘조
묘하게 이유를 따지고 분별을 하고 이게
옳으니 그르니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. 그

뛰어돌기도 좋아하다가도 나이가 들면
점점 식어갑니다. '에이, 귀찮아, 뭐 귀
들어봤자 그렇구.' 이렇게 하듯이 그냥
모든 것을 그냥 다 닦치는 대로 놓고가
라... 육식(六識)이라고 그러는 자체가
그냥 바로 흡수시킵니다. 육식, 팔정도,
육바라미 이런 모두를 전부 거기에다 흡
수시켜 일불(一佛)로서, 한 도량으로서,
한 공명으로서, 광등하게 그냥 놓아라 이
겁니다. 우리는 그 도량의 맛을 보기 위
해서 지금 서로 도반으로서 길을 가고
있는 겁니다. 눈살이 필요없고 이론이 필
요없죠. 이론을 따지다 보면은 한이 없어
요. 이 물을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이
먹고 싶으니깐 그냥 먹었을 뿐이듯이 모
든 일이 그러하다 이겁니다.
지금 여러분들은 못한다는 게 많고 모
른다는 게 많고 업이 어떻게 되는 게 많고
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울
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얽매입니다.
그러나 마음으로 땀바라미 해 보십시오.
마음으로 땀바라미 할 때는 발이 땅에
붙지 않죠. 그러기 때문에 한 찰라라고
합니다. 빛보다 더 빠르죠. 빛은 가다가
꺼어질 수도 있지만 마음의 빛이란 건
오하러 빛보다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.
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 지
구의 대기권에 있는 오존층이 구멍이 난
다든가 이렇다면 얼음이 녹는 등의 변화

가 일어나고 그러면 물난리 불난리가 나
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는 이치가 생
깁니다. 그러나 여러분이 '아, 저걸 막아
야 되겠구나.' 하는 마음이 있다면 - 여
러분이 몸은 가만히 앉혀 놓고 각자 거
길 간다 합시다. 가도 몸뚱이는 가는 게
아니죠. - 그렇게 내 마음을 정돈하면 스
스로 거기에 가게 되는 거죠. 아주 강한
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
흡입은 있다 하더라도 일이 벌어지지 않
게끔 초치를 취해 놓으면 구멍나는 일이
차츰차츰 줄어들면서 얼음이 녹지 않는
다고 볼 수 있겠죠.
그 반면에 지구를 집이라고 한다면, 집
은 좁은데 식구가 많으면 잘 데가 없겠
죠. 쉽게 예를 들어 배추씨나 무씨를 밭
에 뿌려 놓으면 그냥 한테 소복이 모여
서 나오죠. 그럼 그렇게 붙어 있는 걸 속
아취까지 속아주지 않으면 먹을 게 안
나오죠, 자라지도 못하고, 그래서 속는
일이 점차적으로 많아진다 얘깁니다. 이
건 자연의 법칙입니다. 속는 일은 생키
도, 같이 붙어 있을 때 작아도 속아내지
만 또 큰 것끼리 한테 붙어 있어도 한
뿔아내야 한 놈이 제대로 크죠, 그렇죠?
크거나 작거나 붙어 있는 놈들은 다 뿔
아내듯이 이 세상의 만물만생이 다 그러
합니다. 뿔아내는 일이 점차적으로 많이
생긴다는 얘깁니다.

그런 반면에 무엇이 또 거기에 대두가
되느냐. 우리가 만약에 정신계를 추구해
서 물질계와 정신계가 합쳐져 100%가 돼
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진 상
세계가 됩니다. 중세계가 아니라 상세계
'살아오던 습과 착
욕심과 모든생각
한마음속에 흡수시켜
그냥 놓고 사세요'
요. 불꽃토가 된다 이 소리죠. 그건 왜냐
하면은 다른 혹성애다가 또 중세계를 만
들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. 우리가 저런
게 없어도 살 수 있고 이런 게 없어도
살 수가 있는 그런 상세계의 차원이 된
다면 그 없어도 되는 물건이 그냥 다 판
대로 가버리고 말거든요. 판대로 이동이
된다는 얘깁죠. 사람이 물건을 실어다 날
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.
이러니 이런 도리를 어떻게 여러분이
다 인정을 하고 아실 수 있겠습니까? 그
러나 이 마음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이
계시다면 내가 지금 배후발 얘기도 하고

법공양페이지는 동침을 원하는 중단·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
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

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.
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

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
의뢰할 수 있습니다.

18면으로 계속

생활 속의 불교 139

평생을 빗쟁이로 살지 않으려거든

"물 한 모금 마시고 밥 한술 떠 넣으면서도 더불어
먹고 더불어 감사해야 하는 원리를 알아야 한
다.
일부러 '부처님 감사합니다. 부처님께 회향합니
다.' 하는 생각을 지어서 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
깊이 감사하는 마음과 말이 있으면 자동적으로
모든 행동이 일체 중생, 일체제불과 같이 하는 것
인 줄 알아야 한다.
그럼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회향이 된다.
아침 예불시에 국기의 은혜, 부모의 은혜, 스승의
은혜, 배우는 이의 은혜, 좋은 벗의 은혜를 명심하
여 잊지 말고 다짐하는 데 어찌 그 다섯뿐이겠는
가.
이웃의 은혜, 땅의 은혜, 물 바람 불의 은혜 등
어는 것 하나라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. 모든
것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려면 나 하나
잘나서 독불장군이라 할 것이 없으니 절로 돌이킨
도리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."
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.
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. 지금까지도 살은 불
가능하다. 모든 생명체는 배틀고 나누는 관계속에
서만 존재한다. 그렇다고 생명체끼리만 더불어 사
는 게 아니라 외당 자연도 한 몫 독특히 거든다.

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산다. 독불장군으로
살 수는 없다.
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으면서 살아
야 한다. 어떤 한정된 대상에 대해서만 감으면 되
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향해 감으며 살아야 한다.
우리는 흔히 게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
살을 살아야 한다고 듣는다. 그것은 욕심을 억제
하라는 의미이기 이전에 빗을 저지 말라는 뜻이
다. 어느 한 순간이라도 나 이외의 것으로부터 받
는 것을 꾸준히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이상 나
의 삶은 순간순간이 빗을 지는 삶인 것이다. 고로
사는 동안에 빗은 늘어난다. 꾸준히 되갚지 않
는다면 누구나 눈을 감는 순간에 엄청난 빗더미를
남겨 놓고 가게 된다.
그러므로 더 갖기를 바라지 말고 주어진 것에
만족할 줄 알라는 것이다.
더 갖겠다는 욕심은 빗을 더 저겠다는 것이니
어찌 일생을 통해 빗 잔치나 하고 살아야 하느
냐는 물음이다.
그렇기에 우리는 분수와 만족을 넘어 은혜에 감
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생의를 다 기울여서 회
향해야 한다.
먼저 감사한 줄 알아야 갈을 마음도 생긴다. 감



사한 줄 모르는데 배틀고 나눌 마음인줄 생겼는
가.
살은 배푸는 것도 나누는 것도 없다. 오직 되갚
음이 있을 뿐이다. 감사하게 느끼니까 외당 같아
야 하겠노라는 마음이 생긴다. 절로 무우상이 되
는 것이다.
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일상 속에서 감사할 줄
모른다. 특별하게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면 으레
그러려니 생각한다.
그래서 예를 때마다 오종대(五種大恩)만이라
도 명심하여 잊지말라고 가르친다.
알마나 은혜를 모르고 살면 아침마다 이를 외우
라고 했던가.
하물며 땅의 은혜, 물 불 바람의 은혜이겠는가.
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공기를 더럽히고 물을 오염
시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
다.
먼저 지금의 나 자신에게 감사해 보자.
내 정신이 바르고 사지가 말짱하다는 사실에 감
사해 보자. 팔이 하나 없는 사람, 다리에 장애가
있는 사람, 몸이 병이 들어 고통받는 사람이 가장
간절히 바라는 것은 온전한 사지육신, 건강을 되
찾는 일일 것이다. 그에 비하면 지금의 나 자신에
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.

그런 다음에 감사의 대상을 주변으로 확대시켜
보자. 내 가족 한사람 한사람이 감사한 존재로 마
음에 떠오를 것이다. 내 이웃, 내 직장, 동료 중
에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얼굴이 생각보다는 많을
것이다.
나아가서는 저 푸른 하늘도 감사하고 바람 물
불에도 감사할 일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.
부부나존자는 부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
했다. '남이 나를 비방한다면 그가 몽둥이를 들지
않음에 감사할 것이고 그가 몽둥이를 들고 덤빈다
면 칼을 들고 찌르지 않는 데 감사할 것입니다. 그
가 나를 찌르는데 죽이지 않는 데, 그가 나를 죽
인다면 웃을 베풀어 해준 데에 감사하겠습니다.'라
고 했다.
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 베풀어 주
고 나눠주는 데에 감사하지 못할 것인가.
감사할 줄 알면 공감하게 되고 공감을 하면 공
생이 되고 공생이 되면 내게 기쁨이 찾아온다.
평생 빗지고 살지 않으려거든 주위에 감사의 마
음을 보내자.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갈음이다.

협찬: 이병제